Eugene Research
산업분석
2017. 12.04

유진투자증권

미국 세제개혁안과 중소형주



에너지/스몰캡 한병화
Tel. 02)368-6171 / bhh1026@eugenefn.com
스몰캡 한상웅
Tel. 02)368-6139 / sangwoung@eugenefn.com

중소형주 장세

Recommendations

통과 시 국내 중소형주 장세의 색깔 변화 가능성 있어

상원 합의로 연내에 최종 조율안 도출될 가능성 높아

- 지난 주말 미국 상원은 트럼프 세제개혁안에 대해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안과 다른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를 조율해서 최종안을 연말 내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보도된다. 이번 세제개혁안은 31년만에 시행되는 대규모 감세로 10년간 약 1.5조달러의 규모이다. 감세안의 가장 큰 골격은 기업 최대법인세 한도세율을 35%에서 2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개인소득세도 실질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상원과 하원안이 조금씩 달라서 조정이 필요하나 대규모 감세라는 것은 확정된 사안이다. 감세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트럼프의 정책기조는 과거 1980년대의 레이거노믹스와 동일하다. 높은 실업률과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재정상태였던 당시와 현재는 매우 다른 상황이어서, 이번에도 동일한 성공을 거둘지 주목된다.

미국발 산업과 소비경기의 활성화는 명확해져

- 법인세의 대규모 감면과 미국 우선주의는 자국 내의 업체들이 생산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추진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감세안이 확정되면 트럼프의 의도대로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마련할 것이고, 미국적의 업체들도 리쇼어링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세계 최대 소비국가의 소비진작책으로 글로벌 경기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 싸이클은 리먼 사태 이후 거의 10년간 꼬여버린 글로벌 산업경기에 특히 민감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주 장세는 지속되겠지만 주도군은 바이오 일색에서 변화될 가능성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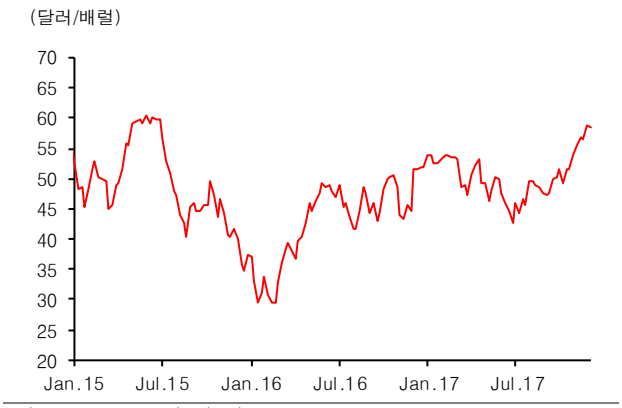
- 코스닥을 비롯한 중소형주 장세는 정부의 부양 의지가 크기 때문에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미국의 세제개혁안이 통과되면 주도주군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발 산업경기의 호황세가 확산되면 WTI 등 상품가격을 상승시키고, 인플레이션 경제로 이동하면서 산업경기와 관련된 제조주들의 성장싸이클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증시의 가장 큰 화두는 바이오업체들이 견인하는 중소형주 장세가 어디까지 상승하는 가이다. 지난 연말대비 코스닥 바이오/제약업종의 시가총액은 50% 이상 증가한 상태로 전체 중소형주 장세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발 세제개혁안이 본격 작동하게 되면 글로벌 산업경기의 활성화라는 중장기 모멘텀이 작동하면서 시장의 성격이 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주도군인 바이오/제약업종은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의 슬림화가 진행되고, 오래 소외된 산업경기와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주목 받을 가능성이 높다.

도표 1 미국 세제계혁안 비교

	상원안	하원안	현행안
Income Tax	7개 소득구간, 최고세율 39.6%에서 38.5%로 하향	4개의 소득구간으로 분류	7개의 소득구간으로 세분
Standard Deduction	결혼세대 연간 $24,000/싱글 $12,000	$24,400/ $12,200	$13,000/ $6,500
Estate Tax Exemption	싱글 $11.2mil	$10 mil	$5.6mil
Corporate Tax	최고세율 20%, 2019년부터 적용	20% 2018년부터 적용	35%
Immediate Expensing	5년간 신규설비 즉시상각 가능	동일	
Foreign Earnings	해외 수입 과세, 현금 등가물 14.5%/재투자수익 7.5% 부과	14%, 7% 부과	유보가능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2 WTI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도표 3 CRB 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89%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11%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17.09.30 기준)